

내주 금통위…물가 압박에 ‘빅스텝’ 전망 확산

모건스탠리, 금리 0.50%p 수정
JP모건·KB·한투증권 “빅스텝”
ING·노무라는 “0.25%p 예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은행이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을 고수해 온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마저 ‘빅 스텝’ 전망으로 돌아서며 이 같은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모건스탠리는 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한은이 올해 7·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측한 데서 7월에는 ‘빅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모건스탠리는 6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6.0%)이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5월 금통위 이후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둔화 우려가 모두 커졌으나, 한은은 다가오는 회의에서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지배적 위험으로 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월 금통위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정책금리의 ‘선제적’, ‘빠른’ 조정 필요성을 언

급하는 등 ‘파괴적’(통화긴축적) 모습을 보인 점, 최근 ‘빅 스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한은의 언급이 나온 점도 7월 빅 스텝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지했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와 향후 급격한 긴축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 위험보다는 성장 둔화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1%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공급과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모두 높다고 밝혔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3.2%에서 2.8%로 낮추면서 “내년에는 기저 효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둔화하겠으나, 공급측 요인이 모두 사라지지 않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P모건 역시 “한은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한국의)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도 이달 빅 스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전날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 발표 뒤 낸 보고서에서 “핵심 소비자물가도 4.4% 오르면서 상승률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은 상황”이라며 빅 스텝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여전히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경기가 가라앉을 우려가 있는 만큼 여전히 이달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전날 노무라증권은 “한은은 지금까지 1.25%포인트의 누적된 금리 인상으로 금융 여건을 빠듯하게 해온 데다 현 단계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달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ING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성급한 금리 인상은 소비 회복을 억제할 수 있다”며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의 대학생 환경봉사단 ‘해피무브 더 그린’.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해피무브 더 그린’ 발대식 성료

대학생 환경봉사단 프로그램
인식 개선·친환경 리더 육성

현대차그룹이 대학생 환경봉사단 운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친환경 리더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이사, 노점환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등 행사 관계자들과 대학생 봉사단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환경봉사단 ‘해피무브 더 그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봉사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활동을 시작한 대학생 환경봉사단 ‘해피무브 더 그린’은 현대차그룹이 2년 5개월 만에 재개하는 대학생 봉사단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해외에서 진행하던 봉사단 활동 범위를 국내로 전환하고 최근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회 이슈인 환경을 테마로 봉

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단체 봉사 ▲탐방 환경봉사 ▲친환경 국내여행 개발 및 실행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학생 환경봉사단 ‘해피무브 더 그린’의 활동은 재미와 함께 친환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참여 대학생들이 친환경 일상을 체득하고 친환경 리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대우위니아그룹, ‘(주)신기인터모빌’ 인수

자동차 부품사 간 시너지 극대화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 강화

대우위니아그룹이 (주)신기인터모빌 인수를 완료하고 종합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우위니아그룹은 지난달 3일 (주)신기인터모빌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 6일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 완료했다. 총 인수금액은 300억 원으로 이는 (주)신기가 보유한 70% 지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우위니아는 (주)신기인터모빌의 최대

주주인 (주)신기가 보유한 70% 지분과 경영권에 대해 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대우에이피와 대우에이텍이 각각 60%, 30% 지분을 인수했다. 나머지 10%는 대우위니아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대우홀딩스가 인수에 참여했다.
한편 1970년에 설립된 (주)신기인터모빌은 차량용 플라스틱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콘솔박스, 엔진커버, 휠가드, 내장트림 등 고기능경량화 플라스틱 부품을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주력 공급해 왔다. 대우위니아그룹은 신기인터모빌 인수를 통해 대우에이피, 대우에이텍 등 자동차 부품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삼성전자, 포장재에 친환경 소재 확대 적용

박스·테이프·완충재·지퍼백
연간 326톤 탄소 감축 효과 기대

삼성전자가 제품 수리용 서비스 자재 포장재에 친환경 소재를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부터 생산공장에서 국내 서비스센터로 보내는 서비스 자재의 배송용 박스와 테이프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한 삼성전자는 6일부터 완충재와 지퍼백에도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배송용 박스는 기존 배송 박스를 지속가능한 린인증활동에 적용된 소재로 전환했으며,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 완충재도 종이 완충재로 바꾸고 지퍼백도 RCS 인증을 받은 지퍼백으로 변경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까지 이들 친환경 포장재를 모든 글로벌 서비스센터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326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

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만 8,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해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후 고객에게 보내는 제품의 배송 박스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10월을 시작으로 수리 후 제품 배송 박스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왔으며, 향후 전세계 31개국 주요 서비스 센터에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고객 서비스 부문의 친환경 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6월부터 180개국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수증, 명세서 등 종이 인쇄물을 전자 문서로 발급하는 ‘페이퍼 프리’ 시스템도 적용했다.
삼성전자 글로벌 CS센터 김형남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고객 만족과 친환경 가치를 모두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함께
건강향로